

동포 여러분, 우리 서로 칭찬합시다!

사할린주
사회정치신문

Общественно-
политическая газета
Сахалинской области

새고려신문

СЭ КОРЁ СИНМУН (НОВАЯ КОРЕЙСКАЯ ГАЗЕТА)

2022년 8월 26일 (금)
...(음력 7월 29일)...
Пятница
26 августа 2022г.
№ 33 (12000)
1949년 6월 1일 창간
.....
Цена свободная



▲ 지난 8월 20일(토) 유즈노사할린스크 시공원 '코스모스' 경기장에서 사할린주 한인협회 주최로 광복절 기념행사가 진행되었다.

(이예식 기자 촬영)

사할린의 학교들, 신학기 준비 중

주 정부 회의에서 알레리 리마렌코 주지사가 9월1일 교육기관들의 준비를 의제로 내놓았다. 9월 1일, 지식의 날을 앞두고 사할린과 쿠릴의 387개 교육기관에 대한 평가가 실시된 가운데 현재 모든 학교들에서 정기 신학기를 맞을 준비 상태가 확인되었다.

"모든 작업을 일정대로 진행하는 것에 중점을 두고, 현재로서는 지식의 날에 안전한 진행을 위해 끝까지 점검하는 게 중요하다. 입학생들에게 특별히 관심을 기울이고, 9월1일 기념일이 가족들에게 불편함이 없도록 모든 학생들이 편리한 지역에서 학교를 다니도록 배정해야 한다."고 주지사가 말했다.

올해는 6만1천여 명 이상의 학생들이 책상에 앉게 된다. 사할린과 쿠릴에서 1학년 입학생은 지난해보다 651명이 늘어난 7천100명이다.

주지사의 지시로 1학년 입학생들을 위한 추가 공간 조성 작업이 이뤄졌으며, 부모들의 요청으로 유즈노사할린스크에 97명의 학생들이 거주지에 따른 학교에 배정됐다. 사할린 지역에서 입학 점수는 9월5일까지 이어진다.

지식의 날에 마카로브와 이투루프의 레이도워 마을에서도 두 개의 새로운 학교가 문을 열며, 마카로브 구역의 노워예 마을에는 새 유치원이 열린다.

이번 신학기를 맞이해 308개 교육기관의 상태가 점검됐고, 이 중 35개 교육기관에 주요 보수공사를 진행했다. 점검 중에 화재 방지 행사, 대테러 안전, 교육 시설 강화에 특별한 관심을 기울였다. 이외에도 100% 교육기관에서 24시간 인터넷 접속이 무제한 제공되며, 모든 학생들이 필요한 교과서를 이용하도록 했다.

외딴 마을에서 오는 학생들을 위해 통학버스망도 조성되어 학생들을 수송하기 위해 출고된 지 모두 10년이 안된 123대의 통학버스가 준비되었다.

신학기 교육기관들의 준비를 위해 16억 루블리가 배정됐는데 이 중 1억9백만 루블리는 연방 예산에서 지급됐다.

사할린주, 중소기업 지원을 위해 3억 루블리 이상 배정

사할린의 기업가들이 창업 시, 자동차 엔진을 가스 연료로 전환 시, 전기차의 충전소에서 충전비 지출에 대한 보상금을 받을 수 있다. 주 예산의 자금에서는 자영업자, 청년 및 사회적 기업가들에게 장려금 지급과 대출이자 결제를 위해 제공된다. 이러한 맞춤 프로그램의 일환으로 25개 사업 지원 조치가 실시되고 있다.

이에 대해 알레리 리마렌코 주지사는 '오포라 러시아(러시아의 원조)'사업연맹의 지역 활동가들과 만남에서 " '오포라 러시아(러시아의 원조)'는 사회경제적 문제 해결에 영향력 있는 사업 동맹이자 우리가 신뢰할 만한 협력자이다. 여러분의 지원 덕에 우리는 투자유치 적합 지역들 순위에서 우리의 위치를 크게 개선시킬 수 있었다. 우리는 기업의 발전과 지역에 새로운 투자유치에 관심을 기울이고 있다. 우리에게는 기업이 창업에 협력하는 것이 중요하며, 국가 지원의 실제적인 정책과 개발연구소들의 활동을 잘 파악하는 것이 유익하다고 본다. 주 정부는 외부적 요소들에도 불구하고 안정적 경제활동을 위한 종합적 대책을 실시하고 있다."고 밝히고, 사할린 투자기획의 투자자들에게 대출이자 지불, 임차료 지불에 대한 투자비용의 일부 보상금 명목과 투자자들의 자원 공급기관망과 기술적 결합 및 장비 구입 목적으로 5억 루블리가 배정됐다고 전했다.

지역 기업 개발 기금은 연4% 이자로 대출된다. 올해는 113건의 소액대출로 3억2천4백만 루블리가 운용됐고, 은행에서 대출 신청 시 담보를 보증하기 위해 1억8천100만 루블리가 44건의 보증금으로 지원됐다.

농식품 분야에서는 40종의 지원책이 제공되며, 올해 이를 실행하기 위해 22억 루블리 이상이 책정되었다고 주정부에서 전했다.

모스크바에서 〈사할린과 쿠릴, 시간을 넘어서〉 전람회 개최

극동 지역을 주제로 한 전람회 〈사할린과 쿠릴, 시간을 넘어서〉가 모스크바 국립역사박물관에서 개최된다. 전람회를 찾는 방문객들은 수공업자들이 만든 극동 지역인들의 생활용품과 사할린 지역의 중요한 제반시설을 알게 된다. 전람회는 8월24일(수) -9월 25일(일)까지 열린다.

8월 28일은 광부의 날 존경하는 석탄산업의 근로자와 전문가 여러분!

주 정부를 대표하여 여러분에게 '광부의 날'을 축하드립니다!

사할린에서 석탄산업의 역사는 19세기 중반에 시작되었습니다.

그때부터 사할린 서부 해안에 석탄 매장량에 대한 광범위한 정보가 생겼고, 활발하게 지역개발이 시작되었습니다.

올해 우리가 현재 국경으로서 사할린주 형성 75주년을 기념하면서 석탄산업의 종사자들께서 지역의 발전과 주민들의 생활을 위한 편리한 여건 조성에 크게 기여하신 바를 기리는 것은 중요합니다.

현재 사할린의 석탄 기업들은 채취량을 증가시키고 있으며, 석탄 운송을 위해 러시아에서 최대 규모의 컨베이어 건설로 대규모 혁신 계획을 실현하고 있습니다.

지역 공공 업체들이 고체연료를 충분히 확보하여 아시아-태평양 국가들에게도 석탄을 공급하고 있습니다. 이 모든 것이 석탄산업의 종사자들과 그들의 가족들에게 미래에 대한 안정감과 자신감을 느끼도록 해주고 있습니다.

석탄산업에 종사하시는 근로자들과 전문가들의 높은 전문성과 쉽지 않은 이 일에 대한 헌신에 감사드립니다.

여러분에게 새로운 성취와 번영과 강건함을 기원합니다!

'광부의 날'을 축하드립니다!

알레리 리마렌코 사할린 주지사

유즈노사할린스크, 신규 이착륙 활주로 공사에 착수

지난 8월 24일(수) 유즈노사할린스크공항의 새 활주로 공사 착수 기공식이 있었다. 이에 알레리 리마렌코 주지사가 참여하여 "새로운 이착륙 활주로는 가장 현대적인 내진 표준에 적합하게 설계되었다. 안전 표준의 한 요소인 기상조건의 악화에도 안정적으로 항공기 운영을 할 수 있게 되며, 건설될 활주로는 모든 유형의 항공기가 이착륙할 수 있도록 할 것이다. 현대적 활주로 건설로 사할린 남부에 물류의 허브 조성하고 연결되어 승객과 화물 운송의 흐름이 현저히 확대될 전망이다."라고 강조했다.

기존 사할린의 활주로는 60년이 되어 사실상 그 수명이 다해 장래 공항의 발전을 저해하고 있다. 유즈노사할린스크 세르게이 나드사진 시장은 "현재 활주로는 1964년에 건설되었고, 몇 차례 현대화 보수작업을 했어도 활주로 자체가 이용 수명이 다했음을 말해주고 있다. 유즈노사할린스크 주민들을 위해서도 활주로는 필수불가결한 것이다."라고 강조했다.

신축 활주로는 모든 현대적 표준에 따라 건설되며, 제한없이 모든 항공기가 안전하게 이착륙할 수 있도록 하여 향상된 활주로를 통해 운항의 최소값이 감소되어 악천후로 인한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게 된다.

2024년부터 이 활주로에서 이륙하게 된다.

새고려신문

2022년 하반기 신문주문

존경하는 독자 여러분! 2022년 하반기 새고려신문 구독신청을 할 수 있다는 것을 알려드리고 앞으로도 사할린 한민족지를 애독해 주시길 바랍니다. 1개월 구독료는 **96루블리 92코페이카**입니다. 신문 인덱스는 ПР575입니다. 신문은 주내 모든 우체국에서 구독할 수 있습니다.

(편집부)



비가 오는데도 불구하고, 광복 77주년 기념 행사 진행

지난 8월 20일(토) 유즈노사할린스크에서 사할린주한인협회 주최로 한반도 광복 77주년 기념 행사가 열렸다.

아침 10시 사할린주 한인협회 박순옥 회장, 주유즈노사할린스크 한국영사출장소 박상태 소장을 비롯해 한인단체 대표, 시행정부 관계자, 시민들이 슬라와(영예)광장 성화 앞에서 일본 제국주의로부터 한반도 해방자들을 기리기 위해 묵념하고 헌화하였다.

이번 광복절 행사는 유즈노사할린스크 시공원 '코스모스'경기장에서 진행되었다.

행사는 북을 치는 '하늘' 타악기 팀과 무용을 하는 청소년팀의 '아리랑' 공연으로 시작되었다.

이날 1800여 명이 모인 가운데 사할린주한인협회 박순옥 회장은 "광복절은 세계 여러 나라에 살고 있는 모든 한인들을 하나로 묶는 국경일이며, 특히나 사할린 주민들에게는 더 중요합니다. 1945년, 우리는 고국으로 돌아갈 수 없게 되었습니다. 러시아어를 모르고 시민권도 없이 이곳에서 생활했던 우리 부모님들의 생활은 쉽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살아남았고, 이제 사할린 섬에서 가족을 만들고, 아이들을 키운 우리의 고향이 되었습니다. 우리는 한민족의 전통과 풍습을 보존해왔고, 가장 중요한 것은, 오늘날 사할린 지역의 주민들이 이 축제 행사를 우리와 함께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라고 말했다.

행사장을 찾아온 알레리 리마렌코 주지사는 사할린 정부를 대표하여 축하 인사를 전했다.

그는 "1945년 8월의 사건들이 한국뿐만 아니라 러시아 역사에서도 중요한 페이지를 차지하고 있다. 소련군의 일조로 한반도가 일제 강점기에서 해방되었고, 이후 사할린 남부와 쿠릴 열도가 해방되었다. 사할린은 수만 명의 한국인들의 고향이 되었다. 지역 발전에 큰 기여를 해주는 모든 한인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다양한 민족의 대표들이 사할린 지역에서 평화롭고 조화롭게 생활하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 사실상, 우리는 하나의 큰 가족이다"라고 말했다.

주유즈노사할린스크 한국 영사출장소 박상태 소장은 "이곳 사할린은 특히 일제 강점기의 아픔이 고스란히 남아 있는 곳입니다. 1945년 해방과 동시에 동서 냉전과 한반도 분단이라는 시대적 비극으로 인해 귀환의 염원을 이루지 못하고 세상을 떠난 분들에게 죄스러운 마음을 금할 길이 없습니다."라고 했다. 이어 "이번 행사가 사할린 한인 동포들에게는 화합의 자리이자, 유즈노사할린스크 시민들에게는 한민족의 전통과 문화를 즐길 수 있는 자리이므로 행사를 통해 동포 사회가 더욱 활성화되고 한국과 사할린 간 협력관계가 더욱 증진되기를 기대한다."고 표명했다.

세르게이 나드사진 시장도 이날 무대에서

올려퍼진 수많은 축하에 동참했다.

"진심으로 여러분의 명절을 축하합니다! 유즈노사할린스크에는 약 2만 6천 명의 한인이 살고 있으며, 이 대한민국 광복절은 확실히 모든 한인 디아스포라들에게 중요한 날이다. 사할린 동포들은 우리 도시와 지역 전체가 번영하고 발전할 수 있도록 큰 기여를 하고 있다. "고 세르게이 나드사진이 강조했다.

광복절 축하 행사로 '에트노스'아동예술평화회 한민족과 학생들과 한인문화센터 소속 팀과 가수들의 멋진 무대가 펼쳐졌고, 태권도 어린 선수들의 시범, 신나는 씨름대회, 찜뽕 요리교실, 한민족 공예 활동교실, 한민족 놀이마당 등등, 비가 내리는데도 불구하고 흥겨움과 재미는 그치지 않았다. 한국 음악에 맞추어 이루어지는 춤판으로 '시민들이 비를 맞으며 즐겁게 춤을 추는 것을 처음 본다.'고 놀라워하는 사람도 있었다.

행사 진행에는 사할린주 한인협회의 소속회 주이산가족협회, 주한인청년회, '사할린한인'유즈노사할린스크 시한인회를 비롯해 '에트노스'학교, '오스트로브'무술센터 등 여러 기관들이 협력했다.

또한 행사 내빈들을 위해 사진전 '사할린 한인'과 한국적 특성으로 장식한 포토존이 마련되었다.

(본사 기자)
(사진: 이예식 기자 촬영)



이 모 저 모

푸쉬스티 간이 비행장에서 '사할린스키 루베쥬' 익스트림 경주 우승자 결정

8월 20일(토) 푸쉬스티 간이 비행장에서 '사할린스키 루베쥬' 익스트림 경주가 개최됐다. 개인전과 단체전에 총 600명 이상의 참가자들이 우승을 위해 출발선에 섰다.

선수들은 6km구간에서 32개의 장애물을 극복해야 했다.

가장 빨리 결승점에 도달한 미하일 아니케예브는 31분 20.1초 만에 모든 장애물을 돌파하였고, 여자부에서는 울리야나 도브로월스카야가 41분1.9초로 가장 먼저 결승점에 도달해 1위를 차지했다. 단체전에서는 '에픽 페일'팀이 45분38.9초로 우수한 성적을 냈다. 주최 측에서는 관객들을 위해 오락 프로그램을 준비한 가운데 예술단 및 정보부대와 특수부대, 제 39 기관총부대 탱크 조종사들의 공연이 열리고, 무기 및 군사 장비 전람회가 펼쳐졌다고 사할린주 스포츠부가 전했다.

На Пушистом определили победителей экстремальной гонки "Сахалинский рубеж"

Экстремальная гонка "Сахалинский рубеж" состоялась на аэродроме Пушистый 20 августа. Победу в стартах одержали более 600 участников в личном и командном зачетах. Спортсмены преодолевали 32 препятствия на протяжении шести километров.

Самым быстрым участником гонки стал Михаил Аникеев, он прошел все препятствия за 31 мин. 20,1 сек..

Первой среди девушек на финиш пришла Ульяна Добровольская с результатом 41 мин. 1,9 сек.

Среди команд лучшее время показали "Эпик фэйл" — 45 мин. 38,9 сек.

Для зрителей организовали развлекательную программу — выступления творческих коллективов, разведроты и спецназа УФСИН, танкистов 39-й мотострелковой бригады, а также выставку вооружения и военной техники, сообщает пресс-служба министерства спорта Сахалинской области.

러시아에서 가을철 관광 캐시백(적립 할인) 프로그램 발표

미하일 미슈스틴 총리의 지시로 연방 관광청이 미르카드 이용자의 관광 캐시백 프로그램에 따른 새로운 가을 관광상품 판매가 시작된다.

관광상품 판매는 8월25일부터 9월10일까지다.

오는 10월1일부터 연말까지 국내 어느 지역이든 캐시백으로 여행을 떠날 수 있으며 크루즈 여행은 9월1일부터 운항이 종료될 때까지 이용할 수 있다.

예전 조건은 여행비용의 20% 적립, 최대 2만 루블리이다.

가을철에 중요한 새로운 시행책은 극동지역에서 이 프로그램에 참가하는 호텔에 직접 예약할 때 적립 비율이 높은 캐시백이 적용된다. 극동지역에서는 최대 2만 루블리가 아닌 4만 루블리이며, 적립 비율은 보통 20%라고 관광청의 자리나 도구조와 청장이 텔레그램 채널을 통해 밝혔다.

В России анонсировали осенний этап программы туристического кешбэка

По поручению премьер-министра Михаила Мишустина Федеральное агентство по туризму запускает новое, осеннее окно продаж по программе туристического кешбэка.

Сроки продаж — с 25 августа по 10 сентября включительно.

Отправиться в поездку с кешбэком в любой регион можно будет с 1 октября и до конца года. При этом в круиз — с 1 сентября и до окончания навигации.

Условия прежние — возврат 20%, максимально — 20 тысяч рублей.

Главное нововведение этого этапа — будет действовать повышенный кешбэк для Дальнего Востока при бронировании напрямую в гостиницу, участвующей в программе: в максимуме не 20, а 40 тысяч рублей. Доля возврата — по-прежнему 20%, об этом в своем телеграм-канале сообщает глава агентства по туризму Зарина Догузова.

사할린 주민들, 수수야 강 부근의 쓰레기들을 수습 자루 수거

8월 20일, 유즈노사할린스크의 수수야 강 부근 지역에서 쓰레기 수거작업이 이뤄졌다. '러시아의 물' 행사를 사할린주의 환경보호 및 안정적 발전부가 지방 운영자들과 공동으로 조성했다. 지역 청소를 위해 사할린주 공공주택사업부 직원들, 대형 회사의 직원들, 노인자원봉사자 대표들 총 80여 명이 나섰다.

"여름 3개월 간 우리는 지역 청소에 따른 쓰레기 수거로 90개 이상의 환경보호 활동을 진행했다. 이 활동에 4천여 명의 사람들이 참가한 가운데 1,110m³의 쓰레기들을 수거했다.

갈수록 이와 유사한 활동에 참가하고 하는 사람들이 증가하면서 활동과 함께 주민들의 의식도 발전하고 있어 기쁘다. 많은 사람들이 자녀들과 함께 대청소에 참여하며, 우리 주의

어린이들에게 주변 환경을 보살펴야 한다는 것을 깨우쳐주고 있다."고 사할린주 환경보호 및 안정적 발전부의 제1차관 넬리 자왈코와가 말했다.

습하고 축축한 날씨에도 불구하고 행사에 참가하려는 사람들은 줄지 않았다.

자원봉사자들에게 우비와 필요한 비품이 제공됐으며, 행사를 마무리하면서 모두에게 따뜻한 차와 간식을 대접했다.

환경보호 행사를 진행하면서 자원봉사자들은 15m²의 쓰레기를 수거했다. 또한 3곳의 무단 쓰레기 매립지가 발견되어 이를 처리했다.

이러한 작업은 앞으로 계속된다고 폐기물 처리부가 전했다.

Сахалинцы собрали десятки мешков мусора в окрестностях Сусуи

20 августа прибрежную зону реки Сусуя в Южно-Сахалинске очистили от мусора. Ацию "Вода России" организовало министерство экологии и устойчивого развития Сахалинской области совместно с региональным оператором. Всего на уборку территории вышли более 80 человек: сотрудники министерства ЖКХ Сахалинской области, крупных компаний и представители "серебряных" волонтеров.

— За три летних месяца мы провели уже больше 90 экологических акций по очистке территорий от мусора. В них приняли участие свыше 4 тысяч человек, собрали и вывезли 1110 кубометров мусора. Радует, что увеличивается количество желающих принять участие в подобных акциях, вместе с этим растет и сознательность горожан. Многие приходят на такие субботники с детьми, тем самым прививая юным жителям нашей области заботу об окружающем мире, — рассказала первый заместитель министра экологии и устойчивого развития Сахалинской области Нелли Завалкова.

Несмотря на сырую погоду, желающих принять участие в акции не убавилось. Волонтерам раздали дождевики, необходимый инвентарь. А по завершении всех ждал горячий чай с угощениями.

В ходе экологической акции волонтерами было собрано 15 кубометров мусора. Кроме того, обнаружены и ликвидированы три несанкционированные свалки. Работа в этом направлении будет продолжена, сообщает "Управление по обращению с отходами".

사할린 '2022-군사' 포럼에 2,000명 이상 참석

〈2022- 군사〉 국제 군사기술포럼을 방문한 사할린주 방문객과 주민들이 독특한 쇼를 관람했다.

(8면에 계속)

사할린 지역 주민 95,000여명, <사할린 주민 카드> 발급

왈레리 리마렌코 주지사의 지시로 지역 주민들에게 추가 할인 및 적립카드를 제공하는 새로운 협력업체 유지에 따라 체계적인 작업이 사할린주에서 실시되고 있다.

현재까지 이 기획에 지역의 약1,500개의 상업 및 서비스 기업들이 합류했다.

이는 지난해 블라디보스토크 동방경제포럼에서 사할린주 정부와 '미르' 국가 결제 시스템 운영자 간 성사된 협정체결 덕에 가능했다. 그중 가장 대중적인 협력업체는 체인 슈퍼마켓 '세메이니', '마트료시카', '벨라루스키 피르멘니', '시모스트', '레미', '에코노미츠', '파파 커피', '쿨리빈', '멜니짜' 등이며, 사할린의 사회적 체인 상점 총 750개가 있다. 총 협력 업체 명단은eks.sakhalin.gov.ru에 게시돼 있다.

"<사할린 주민 카드>는 결제수단일 뿐만 아니라 별도의 문서와 교통카드와 같으며, 사회적 지원금 수급 가능, 기획 협력업체들에게서 할인 및 적립을 받을 수 있고, 여름철에 <사할린 주민 카드> 소지자는 관광 및 호텔 이용에 5% -10% 할인을 받는다."고 사할린주 사회복지부 장관 올가 오를로바가 말했다.

주민 카드의 혜택은 사할린 모든 연령대의 주민이 받을 수 있다. 55세 이상의 주민들에게는 매달 20회 무료로 스포츠 및 문화 행사에 참석할 수 있는데 그중 예를 들면 영화관 '옥차브리', '콤소몰레쯔', '체호브 센터', '크리스탈' 스포츠학교, 동계 스포츠학교, 수상 종목 스포츠학교가 있다. 학생들은 대중교통 이용 시 요금을 지불할 수 있고, 아쿠아파크를 무료로 이용할 수 있으며, 학교 등교 시 학생증으로도 사용된다.

카드 발급은 가스프롬은행, 이투루프은행, 스페르은행, 베테베은행, 로스셀호즈은행, 아시아-태평양은행에서 할 수 있다.

카자흐스탄에서 홍범도 묘지 지킨 사연은?

94년 유해 봉환 놓고 남북 외교전 치열, 장원창 전 원장, 묘역 돌보며 인식 개선

"낮선 땅에 교과서에서 배운 민족 영웅이 잠들어 있으리라고는 생각도 못 했어요. 신기하면서도 안타까운 마음부터 들었습니다."

15일 <한겨레>와 만난 장원창(63) 전 교육부 사할린한국교육원 원장은 1993년 10월께 카자흐스탄 옛 수도 크즐오르다에서 홍범도(1868~1943) 장군 묘역을 처음 봤을 때의 기분을 잊을 수 없다고 했다. 장 전 원장은 "해방도 못 보고 홀로 쓸쓸히 돌아가신 뒤 고국에도 돌아가지 못한 모습에 슬펐다. 고려인들은 홍 장군의 정신을 잊지 않으려 매년 제사를 지내는데 '우리는 그동안 무엇을 하고 있었나?'라는 생각에 빚진 마음이 생겼다."고 말했다.

장 전 원장은 1989년 전국교직원노동조합 활동으로 해직된 뒤 프랑스 파리에서 정치사회학을 공부했다. 그러던 중 1992년 4월 광주·전남 시민들이 성금을 모아 카자흐스탄 알마티에 설립한 민간 한글학교의 교사를 하겠다며 손을 들었다. 러시아 연해주에서 활동하던 홍 장군이 강제이주를 당해 카자흐스탄에 잠들었다는 이야기를 들은 건 이때가 처음이었다.

2년 뒤인 1994년 3월 교사로 복직돼 귀국한 그는 그해 10월 한국국제협력단(코이카) 소속으로 카자흐스탄 국립대학 한국어문화학과 파견 가라는 인사발령이 났다. 당시 독립국가연합(CIS)과 수교를 시작한 우리 정부가 장 전 원장의 경험을 높이 산 것이다. 그는 "1년도 안 돼 다시 알마티로 가 부임 신고를 하는데 김창근 초대 대사가 '자네가 수고 좀 해줄 게 있다'고 했다. 홍범도 장군 묘지를 관리하라는 것."이라고 당시를 떠올렸다. 그때는 한국과 북한이 옛소련 붕괴 뒤 서로 홍 장군 유해를 봉환하기 위해 치열한 외교전을 벌이던 시기다.

김 대사의 주문은 북한이 은밀히 홍 장군 유해를 가져갈 수 있으니 묘지를 지키라는 게 속뜻이었다. 장 전 원장은 홍 장군의 기일이었던 그해 10월25일부터 1996년 5월까지 크즐오르다대학에서 근무하며 홍 장군 묘역 청소나 참배 안내를 도맡았다. 장 전 원장은 "혹시나 북에 해코지를 당할까 봐 겁이 나 학교 학생기숙사에서 지내기도 했다."며 "다행히 북한 사람과 직접 맞닥뜨리진 않았다"고 기억했다. 홍 장군 이장을 놓고 벌어진 남한과 북한의 외교전은 "홍 장군은 옛소련의 영웅이기도 하다."며 카자흐스탄 정부가 이장을 불허하면서 슬그머니 사라졌다.

고려인들의 도움도 그는 기억해냈다. 크즐오르다에는 고려인 지식인층이 다수 거주하고 있었는데 김일성 정권에 대한 비판의식과 함께 1988년 올림픽을 개최한 우리나라에 대한 호감이 싹트던 때였다. 지난해 8월 홍 장군 유해가 우리나라로 봉환될 수 있었던 배경에도 1990년대 초부터 장 전 원장 등의 활동을 지켜보며 한국에 대한 긍정적인 인식을 가진 고려인들의 정서가 자리잡고 있다.

광주 광산구청은 이날 열린 홍 장군 흉상 제막식에서 장씨에게 명예구민증을 수여하며 그동안의 노력을 높이 샀다. 장 전 원장은 "30년 전 이국에서 봤던 홍 장군이 지난해 돌아오는 모습을 보고 벅차올랐다."며 "홍 장군은 고려인들에게 정신적 지주였고 자긍심을 주는 자랑거리였다. 그들을 잊지 말아야 한다."고 말했다.

(출처: 한겨레)



15일 장원창 전 교육부 사할린한국교육원 원장이 1994년 카자흐스탄에서 홍 장군 묘역을 관리하던 때의 이야기를 하고 있다. 김용희 기자 kimyh@hani.co.kr



장원창 전 교육부 사할린한국교육원 원장(오른쪽)이 1993년 카자흐스탄 민간 한글학교 교사 제작 시절 홍범도 장군 묘역에서 찍은 사진. 장원창씨 제공



1994년 10월25일 카자흐스탄 크즐오르다에 있는 홍범도 장군 묘역에서 김창근 대사 등 한국대사관 관계자들이 홍 장군 제사를 지내는 모습. 장원창씨 제공

허진원의 <사랑하기 좋은 날>

처서 / 이기철

발 시린 벌레들이 신발을 사러 간다.

이슬이 물의 뼈를 불러들인다.

햇빛 아니고는 아무도 고요속으로 걸어 들어갈 수 없다.

곧 밤이 감춰둔 초록 잠옷이 고요를 입고 걸어 나오리라

어두우면 모든 곡선들이 직선이 되리라

고요 속에서 여름은 게 떠날 채비를 마치리라

여름은 기원전의 나라처럼 최색의 추억으로 남으리라

그러면 그 자리에 우리가 못 만난 서리의 제국이 창궐하리라

"올 여름은 유난스러웠어요. 내내 폭염이 이어지다가 끔찍한 폭우가 쏟아졌습니다. 부촌으로 잘 알려진 서울 서초동이며 강남이 물에 잠겼을 정도였으니 말 다했죠. 안타까울 따름입니다. 마침 저는 부산에서 여름 휴가 중이었어요. 텔레비전과 인터넷으로 소식을 접했는데요. 제 눈을 의심할 만큼 비참한 상황이 연일 보도로 이어졌습니다. 미담 기사가 종종 나왔지만 1백년 만에 쏟아진 폭우의 폐해를 잠재울 수는 없었습니다. 늘 그렇듯 또 다시 이재민이 발생했어요. 이번에는 서울이 지닌 거주 문제가 또다시 도마 위에 올랐습니다.

도시공학자들과 건교부 장관, 서울시장 등이 대책을 강구하겠지만 제 눈에는 뭐든 쉽지 않아 보여요. 머리를 맞대고 정말 이를 개선하려고 팔을 걷어 부칠 지 확신이 안 섭니다. 무조건적인 불신이 아닙니다. 평소 서울만큼 도로 공사를 자주 벌이는 도시도 드물다고 생각해 왔거든요. 아스팔트 내 하수구 공사, 보도 블록 칸 지 얼마나 뚫었다고, 결핍하면 새 걸로 다시 깔고, 1백년 만에 쏟아진 폭우라고 넘기기엔, 안타까운 사연들이 너무 많습니다.

며칠 전 23일이 '처서'였습니다. 이제 가을로 들어선 거죠. 제아무리 기승을 날리던 무더위도 이제 슬슬 고개를 숙여야 할 판. '처서가 지나면 모기도 입이 비뚤어진다'고 하던데, 과연 가을을 맞아 모기의 그 빨대같은 입이 휘어질지, 정부가 각고의 노력을 다해 이재민 피해 대책을 올곧게 세워 펼칠지, 속도 없이 가을밤은 점점 더 깊어만 가네요."

서울에서 허진원 작가



재외동포재단, '2022 재일동포 청소년(초등) 온라인 한국어 연수' 성료

재일동포 청소년(초등) 대상 온라인 한국어 연수 올해 첫 실시

재일동포 어린이 대상 모국어 학습 동기 부여 및 정체성 형성 계기 마련 목적

재외동포재단(이사장 김성곤)이 개최한'2022 재일동포 청소년(초등) 온라인 한국어 연수'가 3주간의 일정을 마치고 19일 막을 내렸다.

재일동포 초등학생 102명이 참가한 올해 연수는 코로나 19 상황에서도 재일동포 청소년에게 모국어 학습 동기를 부여하고 정체성 형성의 계기를 마련해 주기 위해 온라인으로 처음 진행됐다.

수료식은 서울 동대문디자인플라자(DDP)와 일본 도쿄에 위치한 동경한국학교, 오사카 지역의 금강한국학교를 온라인으로 연결하여 하이브리드로 진행했으며, 재단은 이번 연수의 성공적인 수행을 위해 열과 성을 다해 지원한 일본 관동지역 한글학교협의회 최미란 회장과 관서 지역 이은숙 회장에 감사패를 전달했다.

연수에 참가한 학생들은 수준별 한국어 학습과 한-일 역사문화 비교 수업, 뿌리 찾기 프로그램, 재일동포사회 내 나의 영웅(롤모델) 찾기 등 다양한 맞춤 프로그램을 통해 한국어 실력 향상은 물론 한국에 대해 이해를 높이는 시간을 가졌으며, 특히 남극 기지 대원과의 실시간 인터뷰를 통해 극지 생활에 대한 생생한 이야기를 듣고, 기후 변화로 인해 위기에 처한 동식물의 상황, 지구의 미래를 살리기 위한 다양한 활동 모습 등에 대해 공부하는 뜻깊은 시간을 가졌다.

강시연 학생은"이번 연수를 통해 그동안 몰랐던 고급 어휘를 배우고 평소 에 배우고 싶었던 K-POP 댄스를 친구들과 함께 배우는 등 정말 즐거운 시간이었다"며, "나중에 한국에 가면 이번 연수를 주관한 한국외국어대학교를 꼭 방문해보고 싶고, 한국으로 유학을 가고 싶다"는 소감을 밝혔고, 참가 학생의 부모는 자녀에게 한국어를 배울 기회를 준 모국에 대해 감사의 마음을 전했다.

김성곤 이사장은"방학 기간임에도 연수에 적극적이고 성실하게 참여한 우리 학생들이 자랑스럽다"며, "3주간 연수생들이 배우고 익힌 한국어와 한국문화, 그리고 연수 기간의 결심과 계획들을 잊지 않도록 수료식을 마친 후에도 한글학교를 열심히 다니는 등 연수생 스스로도 많은 노력을 기울여주기를 당부한다"고 말했다.

(재외동포재단 제공)

О диаспоре, и не только

«Центр просвещения и культуры РК на Сахалине» объявляет набор слушателей на 2022-2023 учебный год

1. Начало записи: с 16 августа по 31 августа 2022 г.
2. Все желающие
- (1) Корейский язык: вводный, начальный, средний, спец. лекции
- (2) Уроки культуры: Культура Кореи (средний, начальный), традиционные танцы мира, весёлый корейский (занятия с директором - песни и иероглифы)
3. Начало занятий: с 5 сентября 2022 года.
4. Телефон для справок: 50-56-96

СТОМАТОЛОГИЧЕСКАЯ КЛИНИКА "РАДИКС"



Тел.: 50-00-50; 43-31-31

Реклама

9-11 СЕНТЯБРЯ 2022 Г. - ВЫБОРЫ ДЕПУТАТОВ САХАЛИНСКОЙ ОБЛАСТНОЙ ДУМЫ ВОСЬМОГО СОЗЫВА

ВЯЧЕСЛАВ КИМ: «Сахалинским корейцам нужна программа репатриации»



Выборы — время, когда кандидаты представляют свои программы. Чистые дворы и крепкие дома, ровные дороги, доступная медицина, поддержка честных тружеников — в приоритете КПРФ. Но есть еще одна, специфическая, проблема, которая касается сахалинских корейцев.

Коммунист Вячеслав Ким — об особом пункте своей предвыборной программы.

— Я — кореец, и для меня вопрос возрождения разлученных семей личный. Это вопрос нашей национальной памяти и чести. Программа Красного Креста по репатриации завершилась в 2015-м и стала мостиком, соединившим около 3500 тысяч семей. Однако в прошлом году в Республике Корея вступил в силу Специальный закон о поддержке сахалинских корейцев. Его целью как раз является поддержка в переселении соотечественников, родившихся до 15 августа 1945 года, и сопровождающих членов их семей. Сейчас время непростое, рвутся дипломатические связи России. Под угрозой и эта, новая программа. Отношения, я уверен, наладятся, пусть и не сразу. Но время течет по-разному. Пять-десять лет — сущая мелочь для страны и целая вечность для человека, потерявшего родных. Поэтому вопрос о бережном отношении к интересам сахалинских корейцев станет одним из первых, которые я подниму на посту депутата областной Думы.

Публикуется на безвозмездной основе согласно п. 2 ст. 43 Закона Сахалинской области от 10 апреля 2008 года № 22-ЗО «О выборах депутатов Сахалинской областной Думы».

77-летие освобождения Корейского полуострова отметили в Южно-Сахалинске

20 августа в Южно-Сахалинске отпраздновали 77-летие освобождения Корейского полуострова.

Утром на площади Славы прошла церемония возложения цветов к мемориальному комплексу — дань памяти всем погибшим за независимость Корейского полуострова. В ней приняли участие представители региональной общественной организации "Сахалинские корейцы", консульства Республики Кореи во Владивостоке и администрации города Южно-Сахалинска.

День освобождения Кореи ежегодно отмечается 15 августа как в Южной, так и в Северной Корее. 40 лет Корея находилась под протекторатом Японии, там была создана жесткая военно-полицейская система насилия и угнетения, запрещалось использование корейского языка. В августе 1945 года советская 25-я армия 1-го Дальневосточного фронта под командованием генерал-полковника Ивана Чистякова освободила Манчжурию и Корейский полуостров.

Как рассказала президент региональной общественной организации "Сахалинские корейцы" Пак Сун Ок (Оксана Владимировна), день освобождения Корейского полуострова — это национальный праздник, который объединяет всех корейцев, живущих в разных странах мира, но особенно он важен для сахалинцев.

— Так случилось, что в 1945 году мы не смогли вернуться на родину. Нашим родителям было просто жить здесь без знания языка, гражданства. Но они выстояли, и сейчас для нас остров Сахалин — наш дом, где мы создаем семьи, воспитываем своих детей. Мы сохранили свои традиции и обычаи, и самое главное, что сегодня жители Сахалинской области разделяют вместе с нами это праздничное событие, — отметила Оксана Пак.

Празднование Дня освобождения Кореи состоялось в городском парке на стадионе "Космос". Торжественная программа началась с выступления ансамбля корейских барабанщиков "Хангиль" и танцевального коллектива с композицией "Ариран".

От имени регионального правительства сахалинских корейцев поздравил губернатор Валерий Лимаренко.

Глава региона отметил, что события августа 1945 года — важная страница не только корейской, но и российской истории. Во многом благодаря советским войскам Корейский полуостров был избавлен от японской оккупации, а затем были освобождены Южный Сахалин и Курильские острова.

— Корейцы, насильно завезенные на Сахалин, после войны остались жить на острове. И вместе с представителями самых разных национальностей строили здесь новую жизнь. Для десятков тысяч корейцев Сахалин стал родным домом. Уже несколько поколений родилось и выросло здесь. Это трудолюбивые и целеустремленные люди. И я хочу поблагодарить всех за большой вклад в развитие области. Очень важно, что представители самых разных национальностей живут в Сахалинской области в мире и согласии. По сути, мы одна большая семья, — сказал Валерий Лимаренко.

Было отмечено, что сахалинские власти оказывают корейским общественным организациям помощь в сохранении национальной культуры, языка и традиций. Сахалинская область — единственный регион России, где при государственной поддержке выходят газета и телепрограмма на корейском языке.

К многоголосным поздравлениям, звучащим со сцены в этот день, присоединился мэр Сергей Надсадин.

— От всей души поздравляю вас с праздником! В Южно-Сахалинске проживает около 25 тысяч корейцев, и это событие — день освобождения Корейского полуострова — безусловно, важная дата для всей диаспоры. Сахалинские корейцы вносят большой вклад для того, чтобы наш город и область в целом процветали и развивались. Я выражаю благодарность региональной общественной организации "Сахалинские корейцы" и ее руководителю за огромную просветительскую работу по сохранению национальной культуры и традиций, — подчеркнул Сергей Надсадин.

Во время торжества южносахалинцы могли наблюдать за спортивными состязаниями в национальной борьбе ссирым, попробовать блюда корейской кухни, посетить мастер-классы по каллиграфии, изготовлению брелоков, приготовлению праздничного блюда тим пан — пирожок с начинкой из сладкой фасоли. Также для гостей мероприятия работали фотовыставка "Сахалинские корейцы" и фотозона с национальной атрибутикой.

(По материалам пресс-служб областного правительства и мэрии Южно-Сахалинска)



О диаспоре, и не только

Отношения РК и Китая нуждаются в обновлении

24 августа отметили 30-летие установления дипломатических отношений между РК и Китаем. Установление дипломатических отношений между РК и Китаем 24 августа 1992 года было историческим моментом для двух стран, которые занимали противоборствующие позиции в Корейской войне. Первая проверка нового формата отношений состоялась в 1997 году. Тогда китайские власти, несмотря на протесты Пхеньяна, помогли высокопоставленному северокорейскому политику Хван Чжан Опу перебраться в РК. С тех пор страны расширили границы сотрудничества, повысив их уровень до стратегического партнёрства. В 2014 году председатель КНР Си Цзиньпин в ходе поездки на Корейский полуостров сначала посетил Сеул, а потом Пхеньян. Тогдашний президент РК Пак Кын Хе в ответ посетила торжества в Пекине по случаю 70-летия победы китайского народа в атияпонской войне. Западные лидеры бойкотировали данное мероприятие. В декабре 2015 года Сеул и Пекин подписали соглашение о свободной торговле. Не обошлось и без напряжённых моментов. С 2002 года китайская сторона делала заявления, которые в Сеуле воспринимали как искажение исторических фактов. К примеру, древнее корейское государство Пархэ в Пекине пытались представить в качестве части Китая. В 2016 году двусторонние отношения обострили разногласия по вопросу размещения в РК американских систем ПРО THAAD. В последнее время Китай выражает недовольство тем, что южнокорейская сторона присоединяется к экономическому союзу, инициированному США. Есть необходимость в конкретных шагах по недопущению дальнейшего ухудшения отношений между давними партнёрами.

Пхеньян критикует учения Ulchi Freedom Shield

Северокорейские пропагандистские СМИ продолжают критиковать южнокорейско-американские военные учения Ulchi Freedom Shield, которые проводятся с 22 августа по 1 сентября. 23 августа на сайте «Уриминчжоккири» появилась статья, в которой говорится, что вышеуказанные учения являются подготовкой к военному вторжению в КНДР. Заявления РК и США о том, что учения являются гарантией мира и безопасности, назвали «абсурдной софистикой». Подчёркивается, что манёвры ведут к ухудшению политической ситуации на Корейском полуострове. Отмечается также, на них последует адекватный военный ответ. Это может быть предупреждением о готовности Севера предпринять недружественные действия.

Правительство РК пытается замедлить темпы ослабления воны

Курс национальной валюты РК превысил 1.340 вон за доллар. В этой связи 23 августа президент страны Юн Сок Ёль заявил, что правительство будет решать данную проблему, стремясь не допустить отрицательного влияния ослабления национальной валюты на отечественную экономику. По его словам, укрепление доллара не скажется на финансовой стабильности страны, хотя и вызывает рост импортных цен, ухудшая показатели внешнеторгового баланса и тем самым оказывая отрицательное влияние на рынок. Глава государства дал понять, что правительство не намерено просто наблюдать за ослаблением воны. Финансовые власти сообщили о планах проведения проверки на наличие спекулятивных факторов. Эксперты полагают, что темпы снижения курса воны могут быть скорректированы, но меры должны быть достаточно решительные, учитывая, что причина этого явления носит глобальный характер.

Netflix представит сериал с участием актёров Чхве У Сика и Сон Сок Ку

Компания Netflix снимет сериал «Дневник убийства» (살인자ㅇ남감) по мотивам одноимённого комикса, вышедшего в 2010 году. На главные роли приглашены актёры Чхве У Сик (최우식) и Сон Сок Ку (최우식). В центре внимания актёр Чхве У Сик в роли студента Ли Тхана. По сюжету молодой человек случайным образом совершает своё первое убийство, после которого узнаёт о своей способности различать хороших и плохих людей. Актёр Сон Сок Ку сыграет роль преследующего главного героя полицейского Чан Нан Гама. Участие в создании сериала примут компании ShowBox и Let's Films, известные по таким работам как «Итхэвон класс» (이태원 클라쓰), «Мох» (이끼) и «Ын Гё» (은교).

Иностранцы с краткосрочной визой смогут сдать ПЦР-тест в аэропорту

С 10 августа по 9 сентября иностранцы, прибывающие в РК по краткосрочным визам, смогут сдать ПЦР-тест в аэропорту. Как сообщили в Центральном штабе противозидемических мер, пункты тестирования на вирус будут открыты в аэропортах Инчхон, Кимхэ и Чечжу. Данное решение принято с целью минимизировать количество ввозных случаев COVID-19 в условиях новой волны заражений. Ожидается, что в августе количество иностранных туристов в РК увеличится, учитывая летний сезон и различные акции для иностранцев. Через месяц карантинные власти примут решение о возможном продлении данной меры.

(RKI)

ЛИ И ШИ НЕ ПО-КОРЕЙСКИ

Нынешним летом у меня случилась встреча с совсем незнакомым языком – с эсперанто. Бывая в Санкт-Петербурге, непременно прихожу в городскую библиотеку имени В.В. Маяковского. Там в языковом центре можно познакомиться с единомышленниками как по популярным английскому или испанскому языкам, так и, например, по ивриту, шведскому или корейскому. И на такие языковые встречи ходят даже те, кто только-только приступил к изучению языка. Понимая одну-две фразы, уже можно начинать говорить, а остальное приобретается через говорение и слушание – их обеспечивают встречи в библиотеке.

Занятия по эсперанто были объявлены в форме экспресс-курса за два дня. На первой встрече было двенадцать человек: все они разных возрастов и разных профессий: были поэты, программисты, фотисты, студенты, професоры. Не удивляйтесь! Это перечень занятий людей на эсперато. И не надо знать, что на многих языках мира слова «профессор» и «программист» пишутся с удвоенными буквами. Перевод не требуется, все как слышится, так и пишется! Все понятно и от этого радостно. И, действительно, за одно занятие багаж слов и синтаксических конструкций пополняется очень быстро. Ведущий встречи, знаток эсперанто Андрей Григорьевский, не только активно практикует эсперанто, но и написал «первый в мире фантастический учебник языка эсперанто». «2055: автостоп в космосе» – так называется электронная книга Андрея. Найти ее можно в одной из популярных соцсетей. Но предупреждаю: знакомство с основами эсператно затягивает фантастически!

Кому-то эсператно покажется и, правда, очень легким и отчасти напоминающим восточные языки. Вот, например: ли – он, ши – она, ми – я. Этот список лако-

ничных слов можно продолжить числительными, звуковыми намного короче, чем привычные на русском языке обозначения цифр.

Эсперанто считается универсальным языком: в нем все максимально просто. И потому уже в первые минуты участники встречи смогли назвать свои имена, а вслед за ними научились словам приветствия и благодарности, задали простые вопросы и получили на них ответы.

А запоминаются слова эсперанто очень легко. При свободном порядке слов в предложении нужно знать, что ударение фиксировано и приходится всегда на второй от конца слог; существительные оканчиваются на «о», а прилагательные – на «а». Впрочем, есть и вполне преодолеваемые сложности, но с ними Андрей Григорьевский, обещал научить справляться уже на втором занятии. За быстро пробежавшие два часа в библиотеке были выучены десяток глаголов и наречий, сотня числительных, несколько приставок и суффиксов, которые позволяют быстро образовывать новые слова на бонэ (то есть на отлично).

Когда-то одна из студенток СахГУ увлеклась эсперанто, а вслед за ним освоила еще несколько языков: сейчас молодая женщина работает в англоязычной журналистике и продолжает изучать новые языки.

Ежегодно летом поклонники искусственно созданного языка эсперанто отмечают свой праздник. При этом эсперанто больше рассчитан на европейские страны, но имеет своих последователей и на Дальнем Востоке. Сегодня немногочисленные носители этого языка живут в Хабаровске и во Владивостоке. Несколько лет назад знатоки эсперанто приезжали и на Сахалин.

Елена Иконникова, профессор СахГУ

Война и мир глазами молодого поколения

Совместно с «Азиатским клубом» Молодежное движение корейцев Москвы (МДКМ) провело K-History Day по случаю Дня независимости Кореи в нестандартном формате.

Гостям предложили посетить несколько интерактивных точек, где представилась возможность перевести с корейского языка на русский отрывок графического романа Ким-Жандри Кымсук «Трава», который повествует о тяжёлой судьбе корейской женщины Ли Оксон в условиях ужасающей японской оккупации на пороге Второй мировой войны. Основными сложностями, возникшими в процессе перевода, отметим особый провинциальный диалект Кёнсан-Намдо, на котором говорили герои, так как события романа происходят в 20 веке, а также просторечие персонажей, живущих в деревне.

В другой зоне, связанной с туризмом в Корею, нужно было определить расположение исторических достопримечательностей на карте, а также угадать, какие достопримечательности располагаются в Южной Корею, а какие – в России. Среди них оказались известный дворец Кёнбоккун (г. Сеул), храм Соккурам (г. Пусан), крепость Хвасон (г. Сувон, пригород Сеула) и буддийский монастырь Пульгукса (г. Кёнджу). Также среди фотографий были достопримечательности Северной Кореи: монумент Чучхе и Триумфальная арка (г. Пхеньян), гробница Конмин-Вана (в 14 км от г. Кэсон).

Пришлась по вкусу и точка по обмену книг о Корею, корейской культуре и языке (K-book swap). Гости сдавали свои книги и получали за них жетоны (за каждую – по одному жетону), которые потом обменивали на понравившиеся книги из ассортимента точки. Таким образом, среди предложенных книг оказалось много романов корейских писателей, переведённых на русский язык, самоучители и учебники по корейскому языку, а также интересные журналы о корейской культуре на русском и английском языках.

В основной программе лидер МДКМ Павел Пай и сооснователь «Азиатского клуба» Алина Иванова рассказали о важности освобождения Кореи от японского колониализма для всех корейцев. Их дополнили доцент школы востоковедения НИУ ВШЭ Наталья Ким, президент РОО «Потомки лидеров борцов за независимость Кореи 1910-1950 гг.» Юлия Пискулова, а также



студенты и потомки борцов за независимость Кореи. Желавшие приняли участие в дискуссии на тему «Значение Дня освобождения в современности и его роль для корёсарам».

Завершающей программой стала лекция декана переводческого факультета МГЛУ Екатерины Похолоковой. Будучи одним из переводчиков графического романа Ким-Жандри Кымсук «Трава», она поделилась с гостями комментариями касательно сложностей его перевода, а также назвала трех участников, которые лучше всех справились с переводом.

В познавательной части состоялась викторина на тему освобождения Кореи. Все узнали много нового и получили массу положительных эмоций, выразив благодарность докладчикам и «Азиатскому клубу» за участие в подготовке и проведении K-History Day!

Алина Иванова, соосновательница Азиатского клуба: «Мы рады принять активное участие в мероприятии и обогатить программу события, к которому так ответственно подошли наши коллеги из МДКМ. Я кореевед по образованию и давно хотела сделать большое мероприятие о Корею в коллаборации — этот опыт случился благодаря МДКМ. Особенно приятным было участие в совместном проекте с таким глубоким смыслом — это не просто фестиваль культуры, а погружение аудитории в историю, напоминание о ключевых событиях, повлиявших как на историю стран Корейского полуострова, так и на народы России».

Софья Босых
Фото: Селена Биленко
(Российские корейцы)

Партнер,
созданный для Вас!

"Полигранд"

Тел.: 42-49-54, 42-49-89

Реклама

Карту сахалинца оформили более 95 тысяч жителей островного региона

По поручению губернатора Валерия Лимаренко в области ведется системная работа по привлечению новых партнеров, которые предоставляют обладателям пластика дополнительные скидки и кешбэки. К сегодняшнему дню к проекту присоединились около 1500 торгово-сервисных предприятий региона. Это стало возможным благодаря договоренностям, которые ранее были достигнуты на Восточном экономическом форуме между областными властями и оператором национальной платёжной системы «Мир».

Среди самых популярных партнеров – сеть супермаркетов «Первый семейный», «Матрешка», «Белорусский фирменный», «Симост», «Реми», «Экономыч», «Папа-кофе», «Кулибин» и «Мельница», сеть островных социальных магазинов, насчитывающих в общей сложности 750 фирменных точек. Полный список участников размещен на официальном сайте: eks.sakhalin.gov.ru.

– Карта сахалинца представляет собой не только платёжный инструмент, но и является аналогом отдельных документов и проездных билетов, дает возможность получать социальные выплаты, кешбэк и скидки от партнеров проекта. В летний сезон обладатели пластика могут получить скидки от 5 до 10 процентов на туристические экскурсии, гостиницы, – рассказала областной министр социальной защиты Ольга Орлова. – Например, поездка на маяк «Анива» стоит в среднем 6 тысяч рублей на человека. Экономия по Карте сахалинца – 600 рублей. А если поехать семьей из трех человек, и у каждого члена семьи будет карта, то экономия составит уже как минимум 1 800 рублей.

Оценить преимущества Карты сахалинца может островитянин любого возраста. Так, жителям области от 55 лет предоставляется возможность посещать спортивные и культурные мероприятия бесплатно 20 раз в месяц. В их числе, к примеру, кинотеатры «Октябрь» и «Комсомолец», Чехов центр, спортивная школа «Кристалл», спортивные школы зимних, водных видов спорта. Школьники оплачивают проезд на общественном транспорте, бесплатно посещают аквапарк и пользуются пластиком в качестве пропуска в школу.

Оформить карту можно в отделениях Газпромбанка, банка «Итуруп», Сбера, ВТБ, Россельхозбанка и Азиатско-Тихоокеанского банка.

Новое оборудование установили в Сахалинской областной стоматологической поликлинике

Современный операционный микроскоп повышает эффективность диагностики, а в сложных клинических случаях позволяет детализировать патологии и применять самые действенные тактики лечения. Аппарат приобретен за счет средств областного бюджета для повышения качества оказания медицинской помощи сахалинцам и курильчанам.

В двух из десяти случаев специалисты при лечении зубов сталкиваются с осложнениями, связанными с анатомическими особенностями полости рта, патологическими процессами, возникшими в результате возрастных изменений или ранее проведенных вмешательств. До появления современной диагностической аппаратуры врачам приходилось вслепую искать очаги поражения. Новый операционный микроскоп имеет десятикратное увеличение и позволяет повысить точность любых манипуляций в полости рта.

– Анатомия корневых каналов у всех людей разная – бывают искривления, спрятанные каналы зубов. Благодаря микроскопу снижается риск осложнений. Раньше в спорных случаях доходило до удаления зуба. Сейчас то, что под подозрением, возможно детализировать с помощью микроскопа и перелечить, – рассказала врач-терапевт областной стоматологической поликлиники Евгения Ли.

Возможности хирургического микроскопа позволяют также выявлять онкопатологии. Это происходит за счет увеличения изображения и подсветки тканей слизистых.

– Эндодонтическое лечение осложненных форм кариеса – один из самых трудоемких этапов в лечении зубов. Применение современной оптики позволит ставить более точные диагнозы, максимально сохранять здоровые ткани, обнаруживать скрытые патологии на ранних стадиях, устранять кисты, гранулемы и проводить другие манипуляции. Наш коллектив рад, что областное правительство поддержало наше учреждение в вопросе приобретения дополнительной аппаратуры, – отметил главный врач областной стоматологической поликлиники Вячеслав Кучеренко.

Кроме операционного микроскопа, в стоматологической поликлинике в ближайшее время готовятся запустить новую цифровую зуботехническую лабораторию. С ее помощью будут изготавливать широкий спектр ортопедических конструкций. В учреждение уже поступили фрезерный CAD-CAM станок, цифровой лабораторный сканер, печь для синтеризации диоксида циркония.

– Глава региона Валерий Лимаренко ставит в приоритет медицинскую сферу, так как от этого напрямую зависит продолжительность жизни людей. Ежедневно мы получаем обратную связь от пациентов по вопросам качества и доступности медицинской помощи. Развитие здравоохранения невозможно без улучшения материально-технической базы учреждений, поэтому на закупку оборудования направляются серьезные бюджетные

средства, – подчеркнул министр здравоохранения Сахалинской области Владимир Кузнецов.

Отметим, до конца года обновление ждет также детское отделение областной стоматологической поликлиники. В рамках программы модернизации первичного звена здравоохранения нацпроекта «Здравоохранение» здесь завершён капитальный ремонт, расширена площадь помещений. Сейчас специалисты ожидают поставку для отделения пяти стоматологических установок.

15 инвалидов-колясочников посетили оленью эоферму

С просьбой разнообразить досуг подопечные Южно-Сахалинского дома-интерната для престарелых и инвалидов обратились к губернатору Валерию Лимаренко.

После визита губернатора в социальное учреждение постояльцы уже побывали на морской экскурсии в Невельске и увидели сивучей. Добрую традицию выездов закрепила экскурсия на эоферму Rose Agro в Корсаковском районе.

– Слов нет просто! Все для души сделали. Спасибо руководству области и нашего интерната за организацию этой поездки. И на эоферме нас очень тепло встретили, все понравилось, – поделилась впечатлениями Ирина Мирокова, проживающая в интернате.

Гостям сразу показали главных героев маршрута – пятнистых оленей. В мире таких осталось не больше трех тысяч. Подопечные дома-интерната также покормили гусей и лошадей. Особым успехом у экскурсантов пользовался контактный зоопарк: здесь можно было дать лакомства баранам и поддержать на руках кроликов.

– Ранее на нашей ферме побывали ветераны. Мы часто приглашаем на бесплатные экскурсии представителей социально незащищенных групп. Это наша социальная ответственность, возможность принести благо обществу, людям, познакомив их с нашей территорией и животными, – рассказал менеджер эофермы Андрей Хон.

Руководство дома-интерната для престарелых и инвалидов регулярно собирает отзывы постояльцев и выясняет пожелания, куда бы еще они хотели отправиться на экскурсию.

– Выездные мероприятия в учреждении проводят по одному-два, а иногда и по три раза в неделю. Постояльцев возят в южносахалинские музеи, зоопарк, ботанический сад и городской парк культуры и отдыха имени Гагарина, – рассказал директор департамента инновационного развития системы социального обслуживания регионального министерства соцзащиты Василий Федорщев.

В ближайшее время для подопечных дома-интерната планируют организовать поездку на останец «Лягушка» в районе Восточки. Там с ними проведет время тренер спортшколы олимпийского резерва зимних видов спорта.

Сахалинские школы готовы к новому учебному году

Вопрос подготовки образовательных учреждений к 1 сентября поднял губернатор Валерий Лимаренко на заседании регионального правительства.

Перед Днем знаний оценку прошли 387 образовательных организаций Сахалина и Курилы. На сегодня все они подтвердили готовность к очередному учебному году.

– Главное, что все работы прошли в графике. Сейчас важно внести последние штрихи для безопасного проведения Дня знаний. Особое внимание – первоклассникам. Все дети должны быть устроены в школы в удобных районах, чтобы праздник 1 сентября для семей не был ничем омрачен, – сказал Валерий Лимаренко.

За парты в этом году сядут более 61 тысячи школьников. В первый класс пойдут свыше 7100 юных сахалинцев и курильчан – это на 651 ученика больше, чем в прошлом году.

По поручению главы региона была проведена работа по созданию дополнительных мест для первоклассников. 97 юных южносахалинцев по заявкам родителей были устроены в школы по месту жительства. Приемная кампания в островном регионе продлится до 5 сентября.

В День знаний распахнут двери две новых школы в Макарове и селе Рейдово на Итурупе. Малышей примет современный детский сад в селе Новое Макаровского района.

К новому учебному году привели в порядок 308 учреждений образования, из них в 35 провели капитальный ремонт. В ходе подготовки также уделили особое внимание противопожарным мероприятиям, антитеррористической безопасности, укреплению учебно-материальной базы.

Кроме того, 100 процентов образовательных учреждений обеспечены круглосуточным неограниченным доступом к Интернету. Всем ребятам предоставлены необходимые учебники.

Для учеников из отдаленных населенных пунктов создана сеть школьных маршрутов. Для перевозки детей подготовлено 123 школьных автобуса – все не старше 10 лет.

Отметим, на подготовку образовательных учреждений к новому учебному году выделено 1,6 млрд рублей, из них 109 млн – из федерального бюджета.

Сахалинцы могут пройти бесплатное обучение по бизнесу и выиграть грант

Предпринимательниц острова, женщин-руководителей

компаний и тех, кто только планирует открыть свое дело, приглашают стать участниками курса «Бизнес-акселератор Lady007». Официальное открытие программы состоится 13 сентября в рамках Женского Форума в Южно-Сахалинске. После мероприятия женщин ждет полтора месяца обучения в режиме онлайн.

Во время обучения женщинам расскажут о построении эффективных бизнес-моделей, обучат искусству коммуникации и самопрезентации, поделятся маркетинговыми трендами. С помощью курса участницы проанализируют свой бизнес с разных сторон, узнают, как его масштабировать и обеспечить стабильную финансовую отдачу. Познакомиться с полной программой обучения и зарегистрироваться можно на сайте <https://ruslady007.ru/home>.

По итогам обучения участницы разработают и представят свои бизнес-проекты перед экспертным жюри. В финале авторы лучших проектов получают призы, дипломы, премии, а также гранты и региональную поддержку на развитие своих бизнес-идей.

Организатором мероприятия выступают Общероссийская общественная организация «Женщины бизнеса» и министерство экономического развития при поддержке правительства Сахалинской области.

В этом году на поддержку малого и среднего бизнеса в островном регионе предусмотрели более 300 миллионов рублей

Островные предприниматели могут рассчитывать на компенсацию затрат на открытие собственного дела, переоборудование автомобилей на газомоторное топливо и закупку зарядных станций для электротранспорта. Также средства областного бюджета идут на уплату процентов по кредитам, предоставление грантов самозанятым, молодым и социальным предпринимателям. Всего в рамках соответствующей программы реализуются 25 мер поддержки бизнеса. Об этом губернатор Валерий Лимаренко рассказал в ходе встречи с региональным активом делового объединения «Опора России».

– «Опора России» является влиятельным деловым союзом и нашим надежным партнером в решении социально-экономических задач. Благодаря Вашей поддержке нам удалось значительно улучшить свои позиции в рейтинге инвестиционной привлекательности регионов. Мы заинтересованы в развитии предпринимательства и привлечении в регион новых инвестиций. Для нас важно, чтобы бизнес был вовлечен в деловую повестку, хорошо ориентировался в действующих мерах государственной поддержки и работе институтов развития. Отмечу, что правительство области реализует комплекс мер для стабильной работы экономики вопреки внешним факторам, – подчеркнул Валерий Лимаренко.

Глава региона сообщил, что инициаторам островных инвестиционных проектов выделено 500 миллионов рублей на компенсацию части инвестиционных затрат: по уплате процентов по кредитам и лизинговым платежам, на приобретение оборудования и технологической присоединение к сетям ресурсоснабжающих организаций.

Региональный Фонд развития предпринимательства выдает займы от 4 процентов годовых. В этом году предоставлено 113 микрозаймов на сумму 324 миллиона рублей и 44 поручительства в размере 181 миллиона рублей для обеспечения залога при оформлении кредита в банке.

В сфере сельского хозяйства и продовольствия предусмотрено более 40 видов оказываемых мер поддержки. В этом году на их реализацию направлено более 2,2 миллиарда рублей.

Число малоимущих в Сахалинской области почти за полгода снизилось более, чем на 5 тысяч человек

Этого удалось добиться благодаря реализации программы «Борьба с бедностью» и проекта «Добрые дела карты сахалинца», инициированных губернатором Валерием Лимаренко 5 месяцев назад. На 1 апреля 2022 года в Сахалинской области насчитывали 36 725 человек, состоящих на учете как малоимущие. Сегодня это 31 497 человек.

– Когда мы стартовали по программе «Борьба с бедностью», в Сахалинской области было 11300 таких семей. Благодаря активной работе министерства социальной защиты, новым мерам поддержки, а также неравнодушным меценатам число малоимущих снизилось на 5228 человек. Помощь благотворителей оказывается в том случае, когда государство не имеет правовых оснований на это, – отметила министр социальной защиты Сахалинской области Ольга Орлова.

Напомним, проект «Добрые дела карты сахалинца» позволяет оказывать поддержку, исходя из насущных потребностей той или иной семьи. Неравнодушные меценаты покупают бытовую технику, ноутбуки для онлайн обучения школьников, делают ремонт в квартирах и даже организуют различные мастер-классы для детей из нуждающихся семей.

В рамках проекта среди благотворителей проводится конкурс, призванный поощрить самых щедрых и инициативных меценатов и волонтеров. Подать заявку на участие можно на сайте Карты сахалинца <https://eks.sakhalin.gov.ru/> в разделе «Добрые дела».

(По материалам пресс-службы Правительства Сахалинской области)

9-11 СЕНТЯБРЯ 2022 Г. - ВЫБОРЫ ДЕПУТАТОВ САХАЛИНСКОЙ ОБЛАСТНОЙ ДУМЫ ВОСЬМОГО СОЗЫВА

ПАРТИЯ НОВЫЕ ЛЮДИ

ВЫБОРЫ В САХАЛИНСКУЮ ОБЛАСТНУЮ ДУМУ

11 СЕНТЯБРЯ ВЫБИРАЕМ НОВЫХ!

Публикуется на безвозмездной основе согласно п. 2 ст. 43 Закона Сахалинской области от 10 апреля 2008 года № 22-30 «О выборах депутатов Сахалинской областной Думы».

ИВАНОВА СВЕТЛАНА ВАСИЛЬЕВНА

Депутат, кандидат в депутаты Сахалинской областной Думы

Мой принцип:
Честность - лучшая политика

ПРИГЛАШАЮ НА ВЫБОРЫ
9, 10, 11 сентября

Избирательный округ №3

Публикуется на безвозмездной основе согласно п. 2 ст. 43 Закона Сахалинской области от 10 апреля 2008 года № 22-30 «О выборах депутатов Сахалинской областной Думы».

ПАРТИЯ НОВЫЕ ЛЮДИ

ВЫБОРЫ В САХАЛИНСКУЮ ОБЛАСТНУЮ ДУМУ

11 СЕНТЯБРЯ ВЫБИРАЕМ НОВЫХ!

Публикуется на безвозмездной основе согласно п. 2 ст. 43 Закона Сахалинской области от 10 апреля 2008 года № 22-30 «О выборах депутатов Сахалинской областной Думы».

ПАРТИЯ НОВЫЕ ЛЮДИ

ВЫБОРЫ В САХАЛИНСКУЮ ОБЛАСТНУЮ ДУМУ

11 СЕНТЯБРЯ ВЫБИРАЕМ НОВЫХ!

Публикуется на безвозмездной основе согласно п. 2 ст. 43 Закона Сахалинской области от 10 апреля 2008 года № 22-30 «О выборах депутатов Сахалинской областной Думы».

ПАРТИЯ НОВЫЕ ЛЮДИ

ВЫБОРЫ В САХАЛИНСКУЮ ОБЛАСТНУЮ ДУМУ

11 СЕНТЯБРЯ ВЫБИРАЕМ НОВЫХ!

Публикуется на безвозмездной основе согласно п. 2 ст. 43 Закона Сахалинской области от 10 апреля 2008 года № 22-30 «О выборах депутатов Сахалинской областной Думы».



ИМ ЮРИЙ
Член РООСК,
соучредитель
Сахалинской
Федерации
национальной
корейской борьбы ссирым.
**Намерен продвигать
и отстаивать интересы
корейской диаспоры Сахалина.**
Избирательный округ №9.

Публикуется на безвозмездной основе согласно п. 2 ст. 43 Закона Сахалинской области от 10 апреля 2008 года № 22-30 «О выборах депутатов Сахалинской областной Думы».

Подпишись на газету "Сэ коре синмун"!

Только у нас самые свежие, эксклюзивные и достоверные новости и публикации из жизни корейского сообщества Сахалина, а также новости из Южной и Северной Кореи.

Стоимость подписки на 1 месяц 2022 г. — **96 руб. 92 коп.**
Индекс газеты: **ПР575**

Газету можно выписать во всех отделениях связи Сахалинской области.

[우리말로 깨닫다]

늘 푸른 소나무는 늘 변하는 소나무

늘 푸른 나무라는 말은 한자어로 하면 상록수입니다. 심훈 선생의 소설 제목이기도 하고, 김민기 선생의 노래 제목이기도 합니다. 상록수라고 하면 떠오르는 이미지나 추억이 다를 것입니다. 상록수의 노래 가사와 힘든 역경을 이겨내는 장면들은 늘 감동적입니다. 늘 푸르고 싶다는 것, 거친 세상을 곳곳이 이겨내고 싶다는 희망을 안고 사는 것은 처절한 아름다움입니다.

푸르다는 풀에서 온 말입니다. 우리말의 푸른색은 풀색인 셈입니다. 푸르다라는 말이 하늘이나 바다를 뜻하는 경우도 있습니다만 푸름의 기본은 풀이나 나뭇잎의 색깔입니다. 많은 언어에서 풀색과 하늘색을 구분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색깔의 구분도 중요한 문화의 특징인 셈입니다. 우리말에서도 구별하지 못하는 색이 많기도 하고, 반대로 다른 언어보다 세밀하게 색을 구분해 내기도 합니다. 푸름의 상징으로는 소나무를 들 수 있습니다. 보통 상록수라고 하면 소나무를 떠올리는 사람이 많습니다. 솔잎이 사철 푸르기에 생긴 상징일 겁니다. 애국가에도 '남산 위에 저 소나무 철갑을 두른 듯 바람서리 불변함은 우리 기상일세.'라는 구절이 나옵니다. 소나무는 사군자 중의 하나가 아닌데, 우리나라 사람들은 매란국죽(梅蘭菊竹)의 사군자보다 소나무를 더 좋아한다는 생각이 듭니다. 사철 푸르게 우리와 늘 함께 있기 때문이겠죠.

늘 푸르다는 말을 우리는 늘 변하지 않는 모습으로 생각하고 칭송합니다. 잎이 나고 자라고 색이 변하고 낙엽이 되는 나무와는 달리 늘 푸르기엔 지조라든가 정절을 상징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얼마 전 산을 걷다가 소나무에 대한 설명을 보고 놀라게 되었습니다. 어쩌면 당연한 사실일 텐데 무감각하게 지나간 것일지도 모릅니다. 늘 푸른 소나무의 비결을 설명해 놓은 글이었습니다.

소나무는 늘 잎이 떨어지고 다시 생겨나는 것을 반복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늘 푸른 모습을 유지하고 있다는 설명이었습니다. 당연한 일이겠죠. 한 번 생겨난 잎이 오랜 세월을 지켜나갈 수는 없겠죠. 늘 똑같은 잎으로 푸를 수는 없는 노릇이었을 겁니다. 우리는 상록수라는 말에서 같은 푸름, 변하지 않는 푸름이라고 오해를 하고 있었던 겁니다. 상록은 늘 같은 푸름이 아니고 늘 변하지 않는 게 아닙니다.

늘 푸른 소나무는 늘 변하는 소나무이고, 늘 새로운 소나무입니다. 저는 이 말을 쓰면서 가슴이 뻥뻥합니다. 달리 말하면 늘 새로워지는 나무가 상록수인 셈입니다. 어제가 오늘이 되고, 오늘이 내일이 되어, 마침내 어제가 내일이 된 소나무입니다. 그래서 늘 푸른 소나무, 시시각각 새로운 소나무입니다. 어쩌면 우리가 소나무를 좋아하는 것은 늘 똑같기 때문이 아니라 늘 새롭기 때문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요즘 저는 걷는 일이 많습니다. 예전에는 답답한 마음을 떨치려 걸었는데 요즘에는 걷는 것 자체에 힘든 기쁨을 얻습니다. 몇 시간을 걷다보면 조금 전과 달라져 있는 스스로를 느끼게 됩니다. 앞으로 나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걸으면서 땀을 흘리고 물을 마시며 새로운 내가 됩니다. 나를 바꾸고 있는 시간인 셈입니다. 바쁨을 느끼는 고마운 순간인 셈입니다.

제가 주로 걷는 숲에서 소나무, 잣나무, 전나무를 만납니다. 대관령과 안면도의 소나무 길도 참 좋습니다. 측량산의 잣나무 숲길은 위로와 치유를 선물합니다. 월정사의 전나무 숲은 참 평화롭습니다. 늘 푸르기에 계절마다 느끼는 감정도 다릅니다. 고마운 감정입니다. 문득 늘 새로우려면 늘 털어내야 하는 것이라는 깨달음을 얻습니다. 늘 푸르려면 짐작을 버리고 날마다 새로운 일을 찾아서 앞으로 걸어가야 합니다.

(출처: 재외동포신문)



▲ 조현웅 (경희대 교수, 한국어교육 전공)

‘2022 KBS 한민족 체험수기’를 공모합니다.

동포여러분의 생활 속에서 한민족의 문화와 전통을 전승하고
우리말과 글을 보존하기 위해 노력해온 체험담과
한류와 한글에 대한 생각과 경험을 글이나 영상으로 보내주시면 됩니다.

‘2022 KBS 한민족 체험수기’ 공모에 동포 여러분의 많은 참여 바랍니다.

2022 KBS 한민족 체험수기 공모

공모 분야

한민족의 정체성 확립과 우리말 보존을 위한 체험담과 전통문화계승
그리고 한류와 한글에 대한 생각이나 체험담에 관한 내용

작품 분량

200자 원고지 20매 (A4 3~10장) 내외
영상 5분~10분 내외

심사 기준

- 작품 - 주제 의식과 진솔한 우리말 표현
- 지도교원상 - 참여도 및 수상작품 배출 여부 등

작품 접수

2022. 5. 23 (월) ~ 9. 16 (금) 까지

작품 심사

2022. 9. 19 (월) ~ 9. 29 (목)

수상작 발표

2022. 9. 30 (금) *개별통지

시상 내역

성인 부분 (10)	대상(1명)	100만원 및 상패
	우수상(9명)	각 30만원 및 상패
청소년 부문 (10)	대상(1명)	50만원 및 상패
	우수상(3명)	각 30만원 및 상패
	장려상(6명)	각 20만원 및 상패
지도교원상	지도교원상(2명)	각 20만원 및 상패

보내실 곳 : 서울시 영등포구 여의공원로 13 KBS 한국방송 한민족방송 (우) 07235
“2022 KBS 한민족 체험수기 공모” 담당자 / email: 972khz@kbs.co.kr

이 모 저 모

(2면의 계속)

제8회 <2022-군사> 국제 군사기술포럼이 코르사코브 푸쉬스틱 간 이 비행장에서 19일 -21일까지 3일간 열려 종료된 가운데 전람회에 지역 주민들과 방문객 2천여 명이 방문했다고 동부군관부가 소식을 전했다.

동부군관구 군부대와 사할린 군부대 및 상비군은 현대 첨단 군 장비와 총기, 경찰대의 경찰 망원경, 병사 방호복 등을 사할린 주민들에게 전시했다.

가장 먼저 사할린에서 <2022- 군사>포럼 진행의 역사에 있어 태평양 함대의 군부대 장병들이 '바스티온' 해안포 시스템을 전시했다. 이외에도 동부군관구 군부대 장병들이 포럼 참가자들에게 매혹적인 '탱크의 왈츠' 공연을 선보였는데 T-80중전차로 유연한 기동성을 보여주는 것은 매우 어려운 기술이다. 또한 소비에트 시절 다양한 오토바이의 유형과 대조국전쟁 시기의 무기들 전시는 사할린 지역 육해 공연맹 협력자들이 준비했다.

사할린 비비탄 에어건연맹은 포럼의 참석자들에게 실제 전투용 무기와 구별이 어려운 모형의 첨단 비비탄총을 소개했고, '데상트닉(낙하산부대)' 군스포츠 클럽의 요원들은 격투 전술과 자체 연마기술, 총기와 흥기 사용 연마기술의 시범을 보여주었다.

Более двух тысяч человек посетили форум «Армия-2022» на Сахалине

Свидетелями уникального шоу стали жители и гости Саха-

линской области, посетившие Международный военно-технический форум «Армия-2022»

Восьмой Международный военно-технический форум «Армия-2022» завершился на Сахалине: с 19 по 21 августа за три дня выставка на аэродроме «Пушистый» в Корсакове собрала более двух тысяч жителей и гостей региона.

Такие данные сообщила пресс-служба Восточного военного округа.

Военнослужащие армейского корпуса Восточного военного округа и других дислоцирующихся на острове соединений и воинских частей, продемонстрировали сахалинцам самые современные образцы военной техники, а также стрелкового оружия, оптических приборов разведки и средств бронезащиты бойцов.

Впервые за историю проведения форума «Армия-2022» на Сахалине, военнослужащие одной из воинских частей Тихоокеанского флота продемонстрировали береговые ракетные комплексы «Бастиян».

Кроме этого, военнослужащие армейского корпуса ВВО впервые продемонстрировали гостям форума фееричное исполнение «Танкового вальса». Это очень сложное, синхронное выполнение маневров на боевых многотонных танках Т-80.

Выставку оружия времен Великой отечественной войны и мотоциклов различных моделей времен СССР подготовили сотрудники регионального отделения ДОСААФ.

С современными образцами страйкбольного оружия, которое на внешний вид очень сложно отличить от боевого оружия познакомила гостей форума сахалинская федерация страйкбола, а ребята из военно-спортивного клуба «Десантник» продемонстрировали мастерство рукопашного боя и свои навыки и умения по владению холодным и огнестрельным оружием.

(사할린주 언론기관 자료에서)

사할린한국교육원 2022년 9월학기 수강생 모집

1. 신청기간: 2022년 8월 16일~ 8월 31일
2. 신청 희망 강좌
(1) 한국어 : 입문, 초급, 중급, 특강
(2) 문화교실 : 한국문화(중급, 초급), 필수한자(원장)
주말 민속춤교실(야외,강당)
3. 수업 시작일 :2022년 9월 5일(월)
4. 문의 전화 : 50-56-96

광고-광고

새고려 신문사는 독자 여러분이 신문에 신고자 하시는 광고나 생일 또는 여러 축하문을 접수합니다.

접수 방법은 전화: 43-59-80, 43-72-94.

이메일 : vika131065@mail.ru, skr@sakhalin.ru 로 연락 바랍니다.

САХКОМ ЕДА

Ваш сервис для заказа вкусной еды

Наши преимущества:

- У нас большой выбор заведений
- Удобная разбивка по категориям
- Популярные блюда



- Информация о скидках и акциях в заведениях
- Понравившийся заказ легко повторить
- Сортировка заведений по отзывам и рейтингу



91
ЗАВЕДЕНИЕ



684 200
ЗАКАЗОВ



105 800
ПОЛЬЗОВАТЕЛЕЙ



28 075
ОТЗЫВОВ

Вы можете заказывать



на сайте
edasakhcom.ru



в приложении
eda.sakhalin.ru



Реклама

Редакция не несет ответственности за содержание объявлений и рекламных материалов.
Рукописи не рецензируются и не возвращаются. Мнение редакции не всегда совпадает с мнением авторов.

광고의 내용에 대해서 신문사가 책임을 지지 않음.

Издатель:
АНО «Редакция газеты
«Сэ корё синмун»
(Новая корейская газета)

Гл. редактор Бя В.И.
с.а.н.г. (주필) 배 워토리야

Учредители газеты:
автономная некоммер-
ческая организация
«Редакция газеты
«Сэ корё синмун»,
Правительство
Сахалинской области

Адрес издателя и редакции: 693020
г.Южно-Сахалинск, ул. Чехова, 37
Телефон/факс: 43-59-80,
43-72-94, 43-67-85
E-mail: skr@sakhalin.ru
http://cafe.naver.com/sekoreasinmun.

Отпечатано в ОАО
«Сахалинская областная
типография»,
ул. Дзержинского, 34
Время подписания в печать:
По графику - четверг 16-00
Фактически - четверг 22-00

Издаётся с 1 июня
1949 года.
Выходит по
пятницам
50 раз в год.
Индекс ПР575
Тираж 1100 экз.

Газета зарегистрирована Управлением
Федеральной службы по надзору
в сфере связи, информационных
технологий и массовых коммуникаций
по Сахалинской области.
Свидетельство о регистрации СМИ
ПН № ТУ65-096 от 22 сентября 2011 г.